

실용·실증정신 담아낸 '백과사전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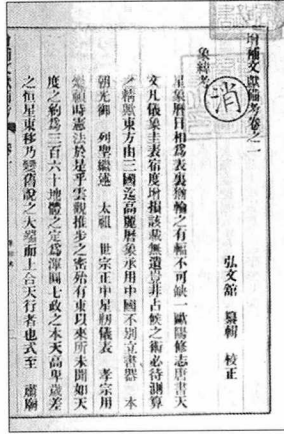
자연과학·농학 등에도 폭넓은 관심... 종합적 연구성과 엮어

우리 역사상 17~18세기는 학문의 르네상스기였다. 주자학적 이데올로기의 '독점 지배'로 인한 사회적 모순을 극복하기 위한 학문적인 반성으로 '실정(實正)·실용·실증(천관우씨)의 새로운 학풍이 일어난다. 곧 실학이 그것이다.

실학자들의 학문적 관심은 종래의 사변적인 공리공론에서 벗어나 제반 사회정책을 비롯, 역사학·언어학·지리학·자연과학·농학에 이르기까지 다방면으로 확대된다. 그리하여 그 종합적인 연구성과로서 백과사전적인 저술이 쏟아져 나온다. 이들 일군(一群)의 실학자를 일러 '백과사전과'라고 부른다.

지난호에 말한 권문해의 《대동운부군옥》(1589)이나 이수광의 《지봉유설》(1614)은 그 선구적인 업적이다. 인조~효종 때의 학자이며 영의정을 지낸 잠곡(潛谷) 김육(金瑬, 1580~1658)의 《유원총보(類苑叢寶)》도 빼놓을 수 없는 선구적 노작이다. 1646년(인조 24) 목판본으로 간행된 《유원총보》(47권30책)는 천문·지리·관직에서 보석·음식·관복·초목·새와 짐승·곤충과 물고기·귀신 등에 이르기까지를 27부문으로 나누어 기술하고 있다.

영조 때의 실학자 성호 이익(李瀼, 1618~1763)의 《성호사설(星湖僞說)》이나 현종 때 오주 이규경(李圭景, 1788~?)의 《오주연문장전산고(五洲衍文長箋散稿)》는 이 시기의 백과사전류로서 단연 돋보이는 노작이다.



우리나라 과학기술백과의 백미인 《오주서종박물고변》(왼쪽)과 전후 140년이 걸려 완성된 《증보문헌비고》.

《성호사설》(30권30책)은 고대로부터 조선후기에 이르는 우리나라의 역사·정치·경제·사회·문화·풍속·언어 등 전반에 걸친 해박한 지식을 백과사전식으로 편찬한 역작이다. 이 방대한 저술을 그의 제자인 순암(順庵) 안정복(安鼎福, 1712~1771)이 참고하기에 편리하도록 간추린 것이 곧 《성호사설유선(類選)》(10권10책)이다. 이 책은 1977~79년 민족문화추진회에서 전11권으로 국역·간행한 바 있다. 안정복이 수많은 책에서 추려 모은 《잡동산이(雜同散異)》(53책)도 백과사전이라기에 손색이 없다.

《오주연문장전산고》(60권60책)는 우리나라와 중국 기타 외국의 천문·지리·풍속·궁실·기용(器用)·음식·금수 등 1천4백여 항목에 대해 고증, 해설한 책이다. 그의 또 다른 저술인 《오주서종박물고변(五洲書種博物攷辨)》은 금·은·동·수정·호박 등 금속류의 종류·품질·산지·성질·가공법·용도 등을 해설한 책으로, 농촌생활백과인 서유구(徐有瀨, 1764~1845)의 《임원경제지

(林園經濟志)와 더불어 조선후기의 과학기술백과로서 쌍벽을 이루는 명저이다.

한편 관찬(官撰) 백과사전류로서 가장 방대한 것은 유명한 《증보문헌비고(增補文獻備考)》(250권 50책)이다. 우리나라 역대 문물제도를 총망라한 이 책은 원래 1770년(영조 46)에 목활자본으로 간행됐던 《동국문헌비고》(100권40책)가 그 원형이다. 그 후 1782년(정조 6) 이만운(李萬運)이 왕명으로 보유작업에 착수, 8년이 걸려 146권으로 편성해 《증보동국문헌비고》라 했으나 간행되지 못하다가, 고종 때에 이르러 제반 사회제도의 변화에 발맞춰 대대적인 수정·증보작업 끝에 1908년(융희 2) 신활자로 간행한 것이 곧 《증보문헌비고》이다. 흥미로운 것은 관찬 백과사전류의 효시인 《동국문헌비고》(1770)가 출간된 시기는 공고롭게도 저 유명한 프랑스 '백과사전과'에 의해 《백과사전》(1751~1772)가 출간된 시기와 일치한다는 점이다. (W)

출판저널

통권 제224호/1997년 11월 5일 발행

발행인 — 정진숙
 편집인 — 전병석
 인쇄인 — 이일수
 편집위원 — 권영빈 김문환
 송상용 이중환
 편집주간 — 이승우
 편집장 — 김지원
 기자 — 마정미 박천홍
 이현주
 디자인 — 윤정자
 사진 — 한준호

업무부장 — 윤동호
 업무·광고 — 이희천 김유희
 김동필 천창환

(재)한국출판금고
 상임이사 — 최학수
 총무부장 — 이정수
 전화: 732-1434~5

등록 1987년 6월 9일-다 435
 대체구좌 010041-31-2826477
 발행처 — (재)한국출판금고
 인쇄처 — 평화당인쇄주식회사

출판저널: 110-190 서울 종로구
 시간동 105-2 출판문화회관 2층
 전화: 732-1431~3 FAX 722-1174
 하이텔: chulpan 천리안 book 732

《출판저널》은 신문윤리강령 및 주간신문윤리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출판저널》 정기구독 안내

매월 5일과 20일자로 발간되는 《출판저널》은 정기구독으로 받아 보시는 것이 빠르고 편리합니다. 본사의 지로용지로 1년차 구독료 40,000원을 송금하시면 입금된 날짜의 해당호부터 맥이나 사무실로 우송해드립니다. 본사의 지로용지가 없으신 분은 전국 각 은행(농협·수협·축협 포함)의 A지로용지에 본사 지로번호 3008669와 금액, 주소, 성명을 명기하여 불입하거나 우체국 대체구좌 010041-31-2826477을 이용하십시오.

공급: 한국출판협동조합
 서울 마포구 신수동 448-6
 716-5616~9, 716-5621~3

BLANK BOXES · ILLUSTRATION BANK

빈 칸 만들기

ILLUSTRATION
 CARTOON
 PHOTOGRAPH
 PUBLISH TOTAL DESIGN
 FINE ART WORK

서울 관악구 신림동 1666-56 대동 B/D 302호
 전화 838-4350 팩스 838-4350
 휴대폰 011-789-4350

독서계의 흐름과 출판계의 이모저모를
 한눈에 볼 수 있게 합철본을 제작, 한층 자료가치가
 높아진 합본호를 판매하고 있습니다.

출판저널 합본호 판매안내

- 합본1호 (날권1~10호) 5,000원(판매)
- 합본2호 (날권11~20호) 5,000원(판매)
- 합본3호 (날권21~30호) 5,000원(판매)
- 합본4호 (날권31~40호) 5,000원(.)
- 합본5호 (날권41~50호) 5,000원(판매)
- 합본6호 (날권51~60호) 9,000원(판매)
- 합본7호 (날권61~70호) 10,000원(판매)
- 합본8호 (날권71~80호) 10,000원(판매)
- 합본9호 (날권81~90호) 10,000원(판매)
- 합본10호 (날권91~100호) 10,000원(판매)

* 구독에 불편하거나·개선할 점이 있으면 전화·서신 등을 통해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 합본호 구입시 우송료는 수취인 부담이므로 본사를 직접 방문, 구입하시면 유리합니다.

* 전화: 732-1433, 팩스: 722-1174

출판저널

출판저널

정기구독 문의
732-1433

* 1년분(22호)
 40,000원
 * 반년분(11호)
 22,000원